

전범국가 연대의 지정학, 히틀러 시대 정인섭의 유럽 여행기

차 혜 영*

요약

본고는 일제말기(1939-1942년) 식민지 조선의 대중매체에 게재된 정인섭의 유럽여행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대상으로 1940년대 유럽 내 지역별 표상의 차이와 당대 미디어텍스트를 비교하며, 제2차대전 전범국가인 삼국동맹의 심상지리를 살펴보았다.

여행기에서 정인섭은 일본-독일-이탈리아 삼국동맹의 시좌에서 1940년대 폴란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히틀러가 공격하는 정복지를 따라 유럽표상을 생산했다. 히틀러의 최초의 정복지인 폴란드와 덴마크는 무저항 속에 평화로운 예술의 고향으로, 프랑스는 퇴폐적인 욕망의 도시이자, 히틀러에게 돈과 목숨을 구걸하는 아비규환의 땅으로 전유되었다. 또한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옛 영광을 회복하려는 영웅으로 추인하고 일-독-이 삼국동맹에 대한 정서적 동의를 표현했다. 정인섭의 여행기는, 그곳을 경험하고 온 문학자의 감수성과 문장력을 기반으로, 삼국의 연대와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제2차대전 전범국가 지정학적 비전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의 유럽 여행기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는 영국문화에 대한 서술은, 이 시기 세계체제의 패권 교체에 대한 전망과 동의, 이에 따른 지식 헤게모니의 재설정 및 기존 지식의 재조정으로 볼 수 있다.

여행기 작가이자 영문학자 정인섭의 사례는, 후발 근대국가의 식민지 출신이자 보편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트랜스내셔널 지식인이, 세계체제 패권 전환기에 기존의 '지식 헤게모니'와의 관계 재설정, 이를 통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의 준거 재설정 등 다양한 문제적 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 교수

주제어: 히틀러, 여행기, 정인섭, 삼국동맹, 전범국가, 지정학, 트랜스내셔널 지식인, 지식인의 문화적 위치, 세계체제 패권, 헤게모니 지식, 동양의 정치학, 냉전 지정학,

목차

1. 문제제기- 여행기 장르와 히틀러 시대의 유럽 여행기
2. 유럽 각국 표상의 차이와 미디어 텍스트의 일·독이 삼국동맹 심상지리
3. 패권 교체기의 지정학과 트랜스내셔널 지식인의 문화적 위치

1. 문제제기- 여행기 장르와 히틀러 시대의 유럽 여행기

정인섭은 1936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언어학자대회’에 참가한 후 유럽 각 도시를 여행했고, 이에 대한 여행기를 1938년 이후, 특히 1940년 제2차대전의 발발 이후 『조광』, 『삼천리』,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에 집중적으로 게재했다. 본고는 정인섭의 일제말기 서구 유럽 여행기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연구이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객관적 기록 내용에 주목해, 여행의 사회 역사적 맥락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개인(소비자/국민) 여행자 정체성’에 주목했다. 이 시기 그의 유럽 여행은 물류, 화폐, 인적이동에서 폐쇄주의로 전환한 역사적 맥락과 ‘세계언어학자대회’라는 국제학술회의 참여하는 연희전문교수 신분과 여행목적,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 등 국가간 자국민 보호시스템, 와세다 대학 출신 영문학자로서의 유창한 영어능력이 결합되어있는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했다고 보았다. 이 맥락과 조건은 과거의 서구를 여행하는 동양인에 대한 ‘식민/피식민, 동양/서구’이라는 프레임이,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패권 전환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소비자)’ 프레임으로 변

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¹⁾

그의 여행이 이루어지고 여행기가 씌어진 1936년~1942년이라는 시간은, 대공황의 후유증이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국제적인 분열을 맞은 시기였다. 대공황 후 국가주도적 계획경제정책 및 이에 대한 국민대중의 호응이라는 국제적 공통적 조건하에서, 영국 프랑스 등 구제국들이 보호 무역주의와 블록경제로 전환하고, 식민지권역을 갖지 못한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이 파시스트 체제를 통한 경제회복과 국내적 인기를 얻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와 기존 패권의 유지·확장 불가능성과 맞물린 시기, 후발 자본주의 국가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재군비를 선언한 것이 1932년, 일본이 서구열강의 만주국 승인불가를 계기로 국제연맹을 탈퇴한 것이 1933년이다. 1936년부터 일·독 반코민테른 협정을 시작으로, 1937년 일·독·이 방공협정 이후 1940년 9월 일·독·이 삼국군사동맹으로 이어진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파시즘 연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제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행기는 여행자가 보고 경험한 것과 그것에 대한 주관적 감상, 그 주관적 감상에 연루되는 共通性(인문적 지식 / 지정학적 견해/ 대중적 편견 등)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 체험과 성찰에 기초한 글쓰기라는 사적인 성격부터 정치적, 지정학적, 대중적 이해관계와 편견, 국가적 프로파간다에 이르기까지 여행기의 컨텍스트적 맥락과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이 스펙트럼 안에는 근대적 기술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현실적 물질적 세계에서의 트랜스 내셔널한 확장과 이동가능성, 개인적 성찰성을 축으로 하는 근대적(私的)글쓰기와 리터러시 미디어(公的)공간, 그리고

1) 차혜영, 「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의 유럽여행과 서구 시와의 변경, 1936년 정인섭의 유럽여행체험에 대하여」, 『국제비교한국학』, 2015.12, 57-100면. 정인섭이 이러한 여행자 정체성(소비자/국민)을 기반으로, 유럽에 대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목한 표상은 '지질의 퇴폐적 오락문화가 넘치는 거대한 소비시장'이라고 서술했다.

내셔널/트랜스내셔널 상황이 상호적으로 규정하며 만들어내는 국가들의 역사적 방향선택과 이데올로기 등이 쟁투하고, 타협하고, 저항하고, 정당화하며 만들어 내는 다양한 역학과 선택들이 개입되어 있다. 이 스펙트럼 내에서의 역학은 예컨대, 『제국의 시선』²⁾이 특징적으로 언급한 서구 18세기 여행기들이 보여주는 탐사기·모험기적 글쓰기 특징이나 구한말 개화기 외국인의 한국 방문기³⁾의 특징들이, 각각 서구 제국주의 성립기의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이나,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영국·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인섭의 여행기는, 히틀러의 전쟁 도발이 예측되는 시점인 1936년에 유럽을 여행하고, 유럽에서 제2차대전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이자 동시에 아시아에서 일본이 도발한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이 진행 중인 시점(1939~1942)에 씌어진 여행기이다. 이점에서 그의 유럽여행기는 대공황과 과시즘 시기, 제2차대전기 및 태평양 전쟁기, 이후의 냉전기로 단절되는 세계체제의 패권전환기에, 한국 근대 지식인이 ‘패권의 담지자’를 어떻게 전유하고 단절하는가, 이 전유와 단절을 통해 획득한 ‘지식 헤게모니’가, 후발 근대 국가의 식민지 지식인의 자기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에 출간된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⁴⁾은 이 시기 히틀러의 독일을 여행한 유럽 여행자들의 일기, 편지, 기행문에 대한 연구이다. 이 저서는 당시 유럽인들이 히틀러의 독일에 대해 보인 태도가, 긴 시간이 지난 후의 지금 세계인들이 평범하게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기이함’ ‘비상식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역으로, 서구인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한 단절 혹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덮어두거나 은폐해 왔음을 드러내는

2) 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익 옮김, 『제국의 시선-여행기와 문화 횡단』, 현실문화, 2015.
 3) A. H. 새비지 랜도우, W. R. 칼스, 신복룡, 장우영 옮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 조선풍 물지』, 집문당, 2019년 외-한말 외국인 기록 시리즈.
 4) 줄리아 보이드, 이종인 역,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 페이퍼로드, 2021.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유럽에서 새롭게 강력하게 부상하던 히틀러의 독일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긴 외국인 중에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인들도 있다.⁵⁾ 이들 식민지 조선인들 내에서도 예컨대 이순탁, 정인섭, 도유호 등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히틀러의 독일을 전유하고 있다. 즉 1920년대 3post(제1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혁명 이후, 3.1/5.4운동 이후) 시기 보여준 서구 에 대한 표상이, 파시즘 분열의 시기에는, 여행자의 사상, 전문분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정인섭의 여행기는 세관, 국경이동, 국제회의 등에 대한 일지식 기록이 보여주는 구체성과 객관성의 차원, 그리고 유럽의 제2차 대전의 진전과 히틀러의 유럽 공격지가 추가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호출해 감상을 쓴 주관성의 차원, 그리고 그 주관성과 객관성을 거대한 지정학 변모의 공식적·대중적 담론과 교차하며 상호텍스트적으로 생산하는 시뮬라크르적 차원까지 광폭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점에서 그의 여행기는 일차적으로 히틀러 시대 유럽 특히 독일을 방문한 해외여행자라는 세계적 공통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조선-일본-유럽의 제2차 대전이라는 세계체제 패권 전환기에, 후발 아시아 제국의 식민지 출신 트랜스내셔널 지식인이 이 패권전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자기화하는지를, 지식 헤게모니로서의 지정학 변경과 동의를 정치학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유럽 각국 표상의 차이와 미디어텍스트의 일·독·이 삼국동맹 심상지리

정인섭의 여행기에서, 그가 체험한 유럽 도시를 기술할 때 가장 공통

5) 이에 대해서는 차혜영, 「1930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환과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지정학-이순탁의 『최근 세계일주기』를 중심으로」, 『국제비교한국학』, 2016.12, 333-378면.

적인 표상은 퇴폐와 오락, 저급한 대중문화로 표방된 자본주의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여행을 하면서 다른 여행자들처럼 유럽의 아름다운 박물관, 미술관, 도시 건축물, 자유로운 사람들, 곳곳이 미술품으로 넘치는 도시에 압도되지 않았을까? 1936년 여행의 시기에 압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0의 여행기에서 그것을 배제한 것이라면, 그렇게 만든 동력은 무엇인가? 이는 퇴폐적 오락문화라는 ‘공통 표상’ 반대편에서, 유럽 내 국가별 ‘차별화된 지역표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 유럽 내 국가와 도시를 차별화 시켜 해석하는 정인섭의 주관적 층위는, 그의 여행기를 쓰는 시점인 1940년대, 일·독·이 삼국의 연대와 동맹이 구체적으로 강화되어가는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936년에 체험한 내용과, 그것을 1940년대에 쓰면서 곳곳에서 삽입되는 걱정적인 시, 애상, 흥분과 감격, 동의와 비난, 조롱, 에피소드화(서사화) 등 다양한 주관적 해석을 개진하는 부분은, 제2차대전에서 히틀러가 공격해갔던 지역과 연동해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1) 폴란드와 덴마크 - 온순한 정복지, 아름다운 예술의 고향

정인섭의 여행길에서, 소련국경을 통과해서 유럽의 관문으로 들어선 첫 번째 국가가 폴란드였다. 그러나 폴란드에 대한 여행기는 1939년 9월 9일 「파란의 인상」⁶⁾부터 시작되었다. 세계 뉴스에서 히틀러의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래, 바르샤바 공격을 신호탄으로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

6) 정인섭, 「파란의 인상」, 『조선일보』, 1939.9.9-13. 4회 연재. 참고로 정인섭의 폴란드 여행기에 대해서, 이민희의 연구(「정인섭이 바라본 폴란드·폴란드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002, 311-336면)는 1차 자료의 출처 등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과 폴란드 문학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정인섭의 이 글을 언급하고 있지만, 『조선일보』 1차 자료 미확인 및 『동아일보』로 착오, 인용과 출처를 해방 후 냉전기, 정인섭 자신이 일제말기에 썼던 자료들을 대폭 삭제, 변경, 수정해서 선집으로 발간한 『세계문학산고』(동국문화사, 1960)를 저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고찰이 필요하다.

점에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내가 병석에서 억지로 집필하는 이유는 왈쇼가 함락되기 전에 써야지하는 생각, 내 붓이 그치기 전에 왈쇼는 점령될지 모른다.”⁷⁾라는 서두로 시작한다.

이 글은 기차 안에서 소·파(소련과 폴란드) 국경 통과시의 긴장과 여권 검색, 독·파(독일·폴란드) 국경에서, 독일 드레스덴으로 공부하러, 장사하러 가는 폴란드 청년들에 대한 독일 군인들의 치밀한 검문검색을 통해 독일과 소련에 둘러싸인 긴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 에스페란토어를 아는 청년과 영어를 하는 폴란드 신여성과의 대화를 통해, 폴란드 사정을 들었던 일화를 소개한다. 대화를 통해 폴란드 내 유대인, 독일에서 추방된 붉은(볼셰비키) 유대계 문제, 그들을 내부로 동화시키기 어려운 간장과 갈등을, 반유대적 시각을 가진 폴란드인 젊은이 입장에서 전달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인과 유대인 등 여러 인종문제 중에서, 특히 유대인에 대해 “초국가적 유대인들은 이기적 수전노군과 국제주의적 사상군(공산주의)들의 두 형인 만큼 실로 이곳 파란에서 특별 취급을 받는 모양이었다.”거나, “왈쇼 전란 중에도 파란의 파쇼와 유대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찾간의 두 청년남녀 같이 여전히 질투나 하지 않는지.....”⁸⁾라면서, 폴란드를 내부에서 ‘파시스트 세력과 유대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분법적 대결로 바라본다. 그 구도에서, 정인섭은 젊은 파시스트를 조국 폴란드에 민족주의적 애정을 가진 것으로, ‘공산주의이자 유대인이라는 약’에 대해 적대감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란 문단 프로필」에서도 정인섭은, ‘세계언어학자대회’에 참석차 유럽을 여행했던 경험을 소환하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펜구락부를 찾고,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했던 젊은 경유 체험을 말한다. 펜구락부 사무실 내부의 “벽에는 『농민』으로서 노벨상을 탄 ‘레몬트’씨의 초상과 기타 파란문호들의 사진” “외국서 출판 기증된 파란 문학의 번역물”이 전시된 것, 미술관을 구경하면서, 단체관람 온 여학

7) 정인섭, 「파란의 인상」 1회, 『조선일보』, 1939.9.9.

8) 「파란의 인상」 3회, 『조선일보』, 1939.9.12.

생들의 치마가 “조선아이들의 색동저고리”와 유사해 보이던 인상, 그리고 카페에서 “커다란 홀 안에 학자, 문인, 음악가, 미술가, 연극인, 영화인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던” 광경을 말하며, “이러한 곳,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관습, 그리고 그들의 교양.....나는 이러한 분위기가 한없이 그리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애상은 삽입된 시에서 표현된다.

비스툴라 강변에/ 화단은 층층이 차에 오르고/비행기는 나비같이 날드
라

와르쇼의 꿈은 사납다/뒤에는 맹호요 앞엔 단애라더니/역사와 현실이
하나가 되다.

지금쯤 창마다 연기가 터지고/고궁의 벽화가 흔들릴진댄.....

우랄 산 넘어 저 무슨 소린고!.....⁹⁾

공격당한 폴란드에 대한 이러한 애상과 그리움은 예술, 꽃, 사람들의 미소에 한정되고, 폴란드에 날아드는 공격과 위협은 ‘우랄 산 넘어’ 즉 소련으로부터라고 시사한다. 또한 히틀러에게 공격당한 시점에서 글을 쓴다는 것을 명기하면서도, 그 공격의 가해자나 공격 자체의 문제성이 아니라, ‘유태적 코스모폴리터니즘’에 대한 비난으로, 폴란드에 닥친 위협의 진원지를 ‘우랄 산 넘어(소련)’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공격자 히틀러와 동일화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여행기는 바르샤바 공원, 중세풍 고시장, 꽃으로 장식된 집과 거리 풍경들, “순 서구 여인들 얼굴의 요철이 그리 심하지 않고, 어딘지 동양적인 점이 있어 서구의 입체적과 동양의 평면적을 잘 조화해 놓 것 같다.”¹⁰⁾라는 인상을 통해, 공격당한 정복지에 대해 “꽃과 평화와 예술과 동양의 이미지”로 한정된 애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정인섭의 여행기는, 반유대적 시각, 반공산주

9) 「파란 문단 프로필」, 『조광』, 1939.11.

10) 「파란의 인상」 4회, 『조선일보』, 1939.9.13.

의적 시각, 파시스트에 대한 긍정, 그 긍정 속에 동양적인 것과 민족주의를 결합시키는 관점이 관류하고 있다.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의 언론의 미디어 텍스트는, 폴란드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유명인들의 회고성 인상기를 집중적으로 게재한다.¹¹⁾ 이와 같은 방식의 회고적 여행기는, 폴란드 등 히틀러의 공격지역과, 싱가포르, 필리핀 등 일본의 공격지역마다 자주 반복되었다. 1920년대 지식인들의 유럽 유학길에 인도양 경유지로 거쳐갔던 경험은, 일제말기 일본의 태평양전쟁기 정복 지역으로서 미디어에 호출되어 재전유되었고, 그곳을 경험하지 않고도 흥분과 감격의 시를 쏟아낸 문인들의 남양담론들과 함께 배치되었다. 이와 같이 제2차대전기 일본발 남양 지역 전유와, 독일의 공격지 유럽 인상기는 상호 조응하며 미디어 텍스트를 채웠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히틀러의 폴란드 공격 시점 『조광』은 '2차대전 특집'과 '파란문제 특집'을 게재한다.¹²⁾ '파란문제 특집'은 히틀러에게 공격당해 제2차대전이 공식적으로 발발한 폴란드를 대상으로, 그 나라의 분할과 독립 투쟁의 역사, 1차대전 종전 이후의 독립과 신흥국으로서의 근과거, 노벨상을 탄 문인과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가들, 퀴리부인 등의 과학자들 등 그곳에 대한 인문지리적 정보를 소개하는 글들이다. 편집상으로는 현재 히틀러에게 공격당한 희생양 폴란드에 대한 애도, 그곳에 대한 객관적 정보 중심의 소개로 보이지만, 이 특집 어디에도 '히틀러의 공격'이라는 어휘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특집에서 특이한 것은 주일 폴란드 대사 부인의 번역일기 「파란 旗下에서」이다. 당시 1939년 9월 히틀러에게 공격당한 폴란드에 대한 그 나

11) 박인덕, 「열과 자유의 신이 잠자는 쇼팽의 모국」, 동아일보, 1939. 9.10 외.

12) 『조광』, 1939년 11월호에는 '파란문제특집'에 김양기, 「파란 독립사」, 쏘피야 듀 로베로 여사(주일파란대사부인), 「파란 旗下에서」, 정인섭, 「파란 문단의 프로필」, 정현웅, 「파란의 미술」, 김찬룡, 「파란은 어떤 곳」이 실려 있다. 제2차 대전 특집에는, 「제2차 대전의 전도」(함상훈), 「제2차대전과 미국의 태도」(김명식), 「제2차 대전과 소련」(이갑섭), 「제2차 대전과 이·소·미의 태도」(온낙중)이 게재되어 있다.

라 국민의 육성이라는 몫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1914~16년 러시아를 상대로 한 독립 투쟁과 민족주의적 열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편집자주-파란이 지금 砲煙彈雨속에 독일의 공격을 받아 건국한 지 사반세기에 이런 참경을 맞보게 된 오늘 그 건국 당시에 양상을 주일 파 대사부인의 談을 譯載하는 것은 파란의 건국 초면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보다도 파란 여성의 열정적인 성격을 여기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¹³⁾

1939년 9월 당시 현재 히틀러에게 공격당한 정복지를 “꽃과 평화와 동양”의 이미지를 전제하고, 그 나라의 민족주의 열정을 여성에게, 그리고 그 민족주의와 독립 투쟁의 상대를 소련(러시아)에게만 한정하는 태도, 그리고 정복당한 그 지역에 대한 인문지리적 정보 중심의 서술, 히틀러라는 공격자에 대한 침묵과 공격당한 나라에 대해 ‘예술과 아름다움’에 한정된 애상의 표현이, 이 당시 히틀러의 초기 공격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여준 식민지 조선의 미디어 텍스트의 관점이었다.

덴마크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인섭의 덴마크 여행기가 최초로 게재되는 것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공격 시점이다. 1940년 4월 9일 독일군이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침공하고, 만나질 만에 덴마크가 항복했을 때, 당시 식민지 조선의 신문에는 ‘무저항 속에 평화롭게 독일군의 보호를 수락한 평화로운 덴마크’에 대한 기사가 이어졌다.¹⁴⁾ 이런 미디어 텍스트와 상호 조응하면서, 덴마크 함락 4일 만에 게재된 것이 정인섭의 「정말 점묘」¹⁵⁾이다. 여기서 그는 덴마크에 대해, 독일 북방에 돌출한 유티란드

13) 쏘피아 듀 로메로 여사(주일파란대사부인), 「파란 旗下에서」, 『조광』, 1939.11, 303면.

14) 「독군, 今朝 정말에 침입」(『조선일보』, 1940.4.10.), 「독일보호수락 정말 關議 결정」(『조선일보』, 1940.4.10.), 「無抵抗裡에 정말 수도 점령」(『조선일보』, 1940.4.10.), 「자전거의 나라 정말」(『동아일보』, 1940.4.11.)

15) 정인섭, 「정말 점묘」, 『동아일보』. 1940.4.13~16, 3회 연재.

반도와 세르트란드 반도 등의 합으로 이루어진 위치에 대한 소개, 간략한 역사, 언어, 코펜하겐 대학, 왕립극장, 건축가 페테르센, 안데르센, 자전거가 주를 이루는 도시 풍경 등을 기술한 인문지리적 정보를 소개한다. 그리고 자신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의 고성(古城), 왕궁, 거리의 자전거 풍경, 유람대형자동차(관광버스)를 타고 관광했던 해안선 풍경과 아름다운 전원과 수목을 서술했다. 이런 동아일보의 「정말점묘」와 거의 동시적으로 「정말 시찰기」¹⁶⁾를 『조광』(1940년 7월~8월)에 2회 연재했다.

그러나 그의 덴마크 여행기는, ‘여행기’라는 ‘근대 개인적 글쓰기’라는 특징에 비춰 보았을 때 특이한 지점이 있다. 덴마크는 1936년 ‘코펜하겐 세계언어학자 대회’가 개최된 여행의 핵심적 목적지였고, 가장 길게 7-8일을 체류했던 곳이며, 1936년 당시 유럽에서 모인 세계 지식인과의 대화가 오갔던 곳이며, 당시 히틀러가 득세하며 파시스트화해가는 유럽의 위기가 이 시기 지식인들의 주요 화제였다. 그러나 정인섭은 「정말 시찰기」에서 이 덴마크 여행 경험은 철저히 일지식 기록 위주로 기술된다. 교통, 국경 이동, 언어학대회의 일정, 학교시찰, 안데르센 기념동상 방문 등의 일정 기록을 제외하면, 자신의 감상, 주관적 해석 등은 거의 내비치지 않는다.¹⁷⁾ 주관적 감상이나 감탄이 등장하는 부분은 주로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이나 사적인 가정의 행복을 목격했을 때 정도이다. 이후에 보게 될 프랑스나 독일에 대한 서술과 매우 다른 면모이다.

큰 딸은 전날 신문지에서 내 사진도 보고 기사도 읽었다고 하면서 정말의 인상을 묻는다. 나는 “북구의 낙원”이란 한말로 대답하였다. 사실상 정말에 와서 느끼는 것은 자연이 아취에 넘치고 사람들이 명량하고 다정하며 가두에 나타나는 제반 분위기가 조금도 쇠잔함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건강하고 학술은 발달하고 생활은 여유가 있는

16) 정인섭, 「정말 시찰기」, 『조광』, 1940년 7월, 8월 (2회 연재).

17) 지식인들의 대화 중 드물게 언급한 것이 ‘민주주의가 약’이라는 켈러의 강연과 대화이다.

모양이다. 나는 이러한 사회도 부러움지마는 이런 가정적인 학교도 부러웠다.¹⁸⁾

위의 글은 1936년 8월 28일, '일본영사관 의뢰 -코펜하겐시 교육국 안내와 알선 - 여학교 참관'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여학교 교장의 집을 방문한 인상이다. '북구의 낙원'이라는 자연 풍광, '평화' '명량' '생활의 여유', '건강'이라는 사적인 가정의 일상에 대해 부러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의 사람들을 그 자연의 일부로서 평화, 다정, 명량, 건강, 생기 등으로 기술하는 시선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다. 이사벨 라버드 비숍이 말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개화기 이래 조선을 여행한 서양인들의 대표적 조선 이미지이다. 그리고 굳이 조선이 아니더라도, 모험·선교·교역 등 어떤 목적에서건 비서구지역을 여행한 서양인의 여행기 상당수가 타문화를 이렇게 표상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 자연의 일부로서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의 위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선이 덴마크라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동양의 후발 근대국가의 식민지 지식인의 시선이라는 것은 기이한 경우이다. 대체 이 시선은 어떻게 해서 성립할 수 있었을까? 북유럽, 특히 덴마크의 경우 농업이 발달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볼 수도 있지만, 같은 지역에 대한 한국인의 심상지리는 1920~30년대 초반의 경우, 농촌개발 모델, 발달된 강소국, 그것을 이끈 교육모델 관점에서 조명된 바 있다.¹⁹⁾ 즉 1920년대 기독교적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개발 지향성 속에 일종의 발전모델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런 북유럽 농업강소국 덴

18) 정인섭, 「정말 시찰기」, 『조광』, 1940.8, 266면.

19) 방태영, 「模範農業國 丁杼國情 方台榮氏歸朝談」, 『매일신보』, 1926.8.26, 「낙원의 정말」, 『신민』, 1929.12월, 박인덕, 「정말 여성을 배호라」, 『조선중앙일보』, 1934.9.22.

마크에 대한 이미지 속에서, 정인섭과 일제말기 식민지 조선의 미디어 텍스트가 보여준 낯선 표상, ‘하급 위계의 평화로운 약자 이미지’는 매우 이질적이고 단절적인 표상이다.

덴마크는 1940년 4월 히틀러의 베네룩스 삼국 정복 이후, 공격 하루 만에 ‘평화적으로 무혈입성’했던 국가이다. 이는 앞서 언급대로, 당대 식민지 조선 미디어 텍스트에서 생산한 ‘무저항 속에 독일군의 보호를 수락한 평화로운 덴마크’라는 이미지로 유포되었다. 이런 보도와 이미지는 이는 일본의 동맹국 독일에 동일화된 시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인섭이 가장 오래 머물고 세계지식인과 가장 많은 대화가 오갔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대해서는 주관성을 철저히 삭제한 일지식 기록 속에서, 덴마크 사람들을 평화로운 자연의 일부로 전유한 것은, 1936년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괄호치고 삭제한 채, 히틀러 공격 후 쉽게 항복한 평화로운 덴마크라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미디어 텍스트의 주도 담론으로 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시기 1920~30년대 서구라는 패권 지역 전유 프레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패권화 및 이에 따른 국소 지역 표상의 교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정인섭 여행기에서 덴마크라는 유럽 강소국을 바라보는 기이한 단절적 이미지는, ‘삼국동맹’이라는 전범국가 연대의 지정학 속에, 개인적 경험의 사실성과 주관성의 선택적 재구성, 그리고 공적·대중적 미디어 주도담론과의 능동적 상호텍스트성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랑스- 베르사이유 체제에 대한 조롱과 폐기

앞서 언급했듯 정인섭이 유럽 도시를 기술한 가장 공통적인 이미지는 퇴폐와 오락, 저급한 대중문화와 자본주의적 욕망이었고,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도시는 파리였다. 「파리의 추억」²⁰⁾에서 정인섭은 자신

이 본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박물관, 미술관, 도시 건축물 등을 감정을 삭제한 일지식 기록으로 채웠다. 이런 방문지 기록 중 주관적 감정이 가장 격정적으로 넘쳐났던 부분은 베르사이유 궁의 ‘거울의 방’을 관람할 때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감격에 겨운 시를 여러 편 삽입하면서 흥분, 열광, 조롱, 비아냥 등 다양하고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그 감정은 1936년의 감정이 아니라, 글 쓰는 시점 즉 히틀러의 파리 공격이 예고되는 1940년 3월~5월의 감정이다.

“(1936년 9월 15일 베르사이유 궁을 보러) 베르사이유역에 도착하였다....나의 추억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구주대전 직후 1919년 평화회의를 개최했던 ‘거울의 방’인데....세계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꾸짖은 그 講和會議가 이 집에서 개최되었건만 20년 후에 파리와 백림 사이는 폭탄의 꿈에 잠을 잘 수 없는 악몽이 잤다왔다 한다. 일찌기 1871년에 독일 ‘프러시아’왕 ‘윌리엄’이 파리를 쳐들어와서 독일황제의 등위를 발표한 데도 이 ‘거울의 廣室’이었는데, 저 백림서는 히틀러가 이곳에 날카로운 시선의 한가닥이 와 있지 않은가! 나는 남은 방을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없었다. 거저 대강 한바퀴 돌고는 후원 뜰로 나갔다”²¹⁾

여기서 그는 베르사이유 궁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거울의 방을, 1871년 보불전쟁에서 독일 승리를 확인하는 장소였다가, 1919년 1차대전 종전 당시 독일의 패전에 따른 강화조약의 장소로, 1940년 현재는 히틀러의 파리 공격이 임박한 먹잇감으로 서술한다. 여기서 파리 베르사이유궁은, 독일(프러시아)·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에게 패배를 안기고, 빌헬름 황제의 즉위식이 행해졌던 승리의 장소,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의 굴욕의 장소, 그리고 이제 다시 히틀러에 의해 빼앗긴 과거를 복원하고 잃었던 영광을 되

20) 정인섭, 「파리의 추억」, 『조광』, 1940년 3월, 4월, 5월 3회 연재.

21) 정인섭, 「파리의 추억」 2회, 『조광』, 1940.4, 262~263면. 참고로 해방기에 정인섭이 재발간한 선집 『세계문학산고』(동국문화사, 1960년)에는 2회 연재분 자체가 삭제되어 있다.

찾을 미래 비전의 장소인 것이다.

이런 파리 표상은 장소표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사실 ‘세계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약속했던 ‘지난 20년간’의 평화체제에 대한 종말 선언, 폐기 처분이기도 하다. 이런 지난 20년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함께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재군비를 선언한 일본·독일 과시즘 국가들(현상타파 국가)들의 역사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생각은, 주로 삼입된 시를 통해 베르사이유조약의 평화의 꿈은 ‘허상’으로, 문화와 예술은 ‘허영’으로 전치되면서, 제1차 대전의 옛 승리자들을 조롱하고, 오늘의 패배를 비아냥대는 것으로 표현된다.

“파리의 밤은 환락의 迷宮/ 세계의 밤은 비로소 눈을 뜬다/루브르의 문이 닫히고 마로니에불이 비칠 때/ 밤의 요사들은 「그란 블르바」로 진군한다. 창없는 마로니에 사원엔 신비가 속삭이고 /오페라 좌 앞에는 인간요리가 沸騰한다/ 술과 魔樂도 효력을 잃었으니/ 파리병은 누가 치료하려내고 / 마지노선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防共消燈에 두더지가 되다 파리의 밤은 몽마르트 거리/ 肉彈勇士들은 脂粉을 먹고살다

.....

개선문이 車輪이 되어/나폴레옹이 아직도 지구를 돈다 /베르사이유 궁전이 위급하던 날/ 카이젤 수염은 미소했으련만/그 어느 영웅이 소생합인지/ “마지노”와 “지그프리트”는 싸운다.

.....

파리잔과 파리젠느는 부르짖는다/ “몽 파리! 몽 파리!” /‘블바르’거리의 카페에서도/ ‘호텔 듀’의 병원에서도/오페라좌의 무대에서도/ “몽파리! 몽 파리!”...../ 나는 서울의 지붕 밑에서/파리병사의 나팔소리를 듣는다/ 몽마르트의 지붕 밑에는/ 여전히 밤 모르는 청춘이 있어서 /‘코로나를 박물관’의 정조대를 비웃고 있다.... 22)

22) 시 ‘파리의 밤’, 「파리의 추억」 3회, 위의 글.

위의 시에서, 독일은 술·마약·쾌락에 찌든 파리병을 치유할 자로, 쾌락에 취한 프랑스인들은 마지노선의 악몽과 방공 소동이라는 1940년 현재 전쟁의 아비규환 속에서, 몽파리를 울부짖고, 독일 군인들에게 몸 팔고 돈을 구걸하는 파리 여인들로 표현된다. 카이젤 수염과 영웅으로 표상되는 독일의 공격, 마지노선과 지그프리트의 싸움 속에서 파리의 ‘몽파리’는, 전쟁의 화염 속에 죽어가는 파리 시민들의 울부짖음으로 표상된다. 기실 ‘몽파리’란 파리의 대중오락문화 공간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레뷰 댄스로서 경성, 동경에서도 유행한 것이기도 했다.²³⁾ 그러나 이 맥락에서는 ‘나의 파리’라는 마지노선에 울부짖는 파리 시민들의 비명, 죽음의 단말마, 목숨과 돈을 구걸하는 비명으로 전유되어있다.

히틀러가 폴란드, 베네룩스 삼국 덴마크, 벨기에 등에 이어 파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1940년부터 이에 대한 전황보도는, 세계 통신사발 뉴스로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도 속속 타전되고 있었다. 파리발 통신을 통해 ‘히틀러 공격 등의 유언비어에 미혹되지 말고 파리를 사수하자’는 프랑스 수상의 방송연설 요지²⁴⁾에서부터, 만주리발 통신을 통해, 격전지 시찰을 통한 전쟁예측²⁵⁾까지 어느 정도 다양한 시선의 기사와 뉴스가 존재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독일의 공격 중심 전황보도가 다수를 차지했고, 이 뉴스들은 대부분 히틀러의 공격에 따른 흥분과 감격, 긍정적 기대가 섞인 해설기사들과 함께 게재되었다.

“(1940년 5월) 17일 佛白국경의 마지노선을 돌파하고 대거 佛領에 쏜

23) 차혜영, 「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의 유럽여행과 서구 시좌의 변경, 1936년 정인섭의 유럽여행체험에 대하여」, 『국제비교한국학』, 2015.12.

24) 「佛國 정부는 끝까지 파리에, 레이노 수상 방송」, 『동아일보』, 1940.5.18. “(1940년 5월 16일 오후) 라디오를 통해 전국민에게 불국정부는 어디까지든지 파리에 남아서 싸울 결심이므로 국민은 流言에 迷徨치 말고 輕舉를 삼가라고 경고하였다.”

25) 「“히틀러는 태양과 같다.” 독국민, 승리를 불신-寺岡사무관 구주정세시찰 담」, 『조선일보』 1940.2.25.

아진 독군 쾌속부대는....독군 今後의 작전은 도버해협 방면에 진격하여 英佛의 연락을 단절한 후만약 一路 파리에 進擊한다면 二日만에 이를 함락시켜 보이겠다.”²⁶⁾

“수 일 전부터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불란서의 생명선이 마지노선이요, 지그프리트가 독일의 생명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²⁷⁾

“프랑스 전선에서 결정적 승리로 종료시키고 있는 독일군의 다음 공격목표는 런던일까, 파리일까, 세계의 視聽은 오로지 여기에 있는데, 나치스 최고 간부는 삼십일 독군이 파리로 향해야 일대 공세로 轉할날은 目睫間에 있다고.....”²⁸⁾

1936년의 여행경험을 1940년 파리함락이 임박한 시점에 쓰는 정인섭의 여행기는, 이런 미디어 텍스트에서 유포되는 파리함락 임박 시점의 대중 표상, 독일 중심의 대중적 지정학과 호응하고 감정적 격앙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1920년대(3post-제1차 대전 이후,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 3.1/5.4운동 이후) 시기 베르사이유 평화체제에 대한 폐기, 서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비난과 조롱, 소돔과 고모라처럼 몰락의 아비규환으로 묘사되는 서구문명, 그리고 이와 대립해, 이 몰락할 문명을 구원할 히틀러라는 영웅에 대한 열광, 1940년 현재 독일이 치르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라는 당시 전범국가 파시스트 동맹국들의 심상지리를 확대, 강화, 감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파리함락이 확정된 후, 1940년 10월 『삼천리』에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서술된다.

26) 「파리의 운명은 二日間- 一路進擊하면 함락은 不難(백립발동맹 통신)」, 『조선일보』, 1940. 5.19.

27) 「서로 눈치만 보는 두 큰 괴물」, 『동아일보』, 1940.5.19.

28) 「파리 공략도 容易」, 『동아일보』, 1940.6.1.

佛蘭西는 第一世界大戰에서 大勝을 하여 세계를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예술은 그들의 유행과 한가지로 세계를 풍미하였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戰敗를 당한 그들이 『히틀러』의 지배를 받고 『히틀러』의 만족스런 미소가 휘돌고있을 때 巴里人들은 세느江 좌우에 양립한 凱旋門과 분묘를 쳐다 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참으로 인생은 무상하고 역사는 변천한다. 그러나 巴里는 여전히 巴里일 것이요 巴里的 거리의 여인들이 獨逸兵隊를 보고 미소를 띠우며 서투른 獨逸語를 속삭인다...²⁹⁾

3) 독일과 이탈리아 - 신생하는 미래의 형제 국가들

위에서 본 히틀러의 유럽 정복지 도시들과 비교할 때 독일과 이탈리아 여행을 서술하는 정인섭의 시선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베를린에서 유럽의 밤거리의 유락문화, 거리 여인의 유희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낮의 관광-박물관, 유적지, 기념관 등등 국가와 문화제도, 삶의 일상성을 바라보는 관광-에서, 그것을 쓰고 기술하는 시선에서 다른 나라들과 현격히 대비된다.

(1) 고요한 제국의 중심- 독일

앞선 연구에서 언급했듯 정인섭에게 베를린은, 일본인회관, 요코하마정 금은행, 일본영사관, 일본대사관을 이용하고, 쌀밥을 먹고, 올림픽의 영웅 손기정의 인기를 실감한 장소로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보호막을 체험하게 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베를린에 대해서 정인섭이 선택해서 쓰는 것은 이런 여행의 개인적인 차원을 보호해주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그늘막이 전부는 아니다. 그는 극장에서의 연극관람, 독일 지식인 및 문인들과의 대

29) 정인섭, 「巴里 『奈巴倫墓』參拜記, 凱旋門을 지나 偉人の 무덤을 찾다」, 『삼천리』, 1940년 10월, 92-93면.

화, 그리고 낮의 관광을 통해 독일의 현재와 세계에 대한 인상과 해석을 열광적으로 표현한다.

여주인공을 하든 힐데바르가르트 바르코라는 이쁜 여배우가 반가히 마저준다. 그는 혼자 면경을 들여다보고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일본을 꼭 좋아하는 모양이었다...나는 그들에게 독일 극단(劇壇)에 대한 질문을 했다....그때 마츨 國外放送된 토마스·만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올시다.”라고 한다....“그는 히틀러를 반대하니깐요!”한다. 그러자 남녀배우가 모다 동감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지극히 간단한 선악의 논리를 듣고 과연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히틀러를 따르면 선자요 반대하면 악인이다’하는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예술내지 문학에 대한 태도일 것이요 또한 현 독일문단의 기초일 것은 틀림없다.³⁰⁾

위의 인용문은 일본영사관의 편지와 안내를 통해 연극관람을 마치고 관계자의 안내로 ‘특별히 일본을 좋아하는 여배우’를 만나고 독일문화 예술인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1936년 시점, 그는 히틀러의 문화정책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독일의 문화예술인들을 그들의 논리로 인정하고 추인한다. 당시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던 독일의 책화형식이나 지식인 탄압에 대해 침묵한 채, 토마스 만 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등 바이마르시대 지적엘리트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일련의 선택에 동의·추인한다.

또한 그는 독일을 넘어 유럽의 지배자로 부상하고 있는 히틀러에 대해, 히틀러의 전쟁행위를 다음의 인용문과 같이 독일의 고토 회복 의지의 표현으로 정당화한다.

30) 정인섭, 「백림기」, 『조광』, 1939.8, 110면.

숙소를 찾으려고...대사관 있는 곳을 찾으려고 지도를 펴두고 서편을 향해...먼저 내 눈에 띄운 것은 이 거대한 도리아식 원주로 되어있는 개선문이었다. 18세기 말에 건축기사 랑그하우스가 고안한 것이라는데 소위 브란덴브르크 문이라고한다.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백림을 점령했을 때 한번 빼앗겨서 파리로 갔던 것을 다시 백림에 돌려온 것이라 한다.³¹⁾

그가 보기에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은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정당한 실지회복의 역사이다. 또한 정인섭의 여행기에서 여행의 사실을 기록한 이후, 삽입되는 시들은 그 지역을 전유하는 주관적 정서와 그것을 전쟁과 정복 등 당대 공적 지정학과 궤를 맞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앞서 본 폴란드에서는 애상의 정서를, 프랑스 파리에서는 조롱과 적대감의 정서를 보였다면, 베를린 부분에서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다는 게르만의 꿈”, 황홀함을 노래한다.

한때는 눈물과 기아와 폐허/오늘은 규율과 절규의 서울/ 사람들은 모두
두 ‘히틀러’를 부른다/ 운터 덴 린덴가는 버티고 있다./한개의 거인과 같이/구주는 시방 그의 眼下에 있지 않는가?/ 게르만의 꿈은 환상이 아니니
/ 花火같이 피어서 터져서 뺨치어서/ 나그네의 두 눈을 황홀케 한다. / 그들은 비루를 차 마시듯하고 /결투를 인사하듯이 하건만/ 백림의 거리는
이상이 없다/ ...백림의 등불 밑 동방의 젊은 나그네/ 그는 이제 잠 못 자고
밤을 새이다....³²⁾

위의 시에서 ‘한때의 눈물과 기아와 폐허’는 제1차 대전 종전 후 인플레이와 실업으로 고통 받은 지난 10여년의 독일 경제상황, 현재 구주는 히틀러의 눈 아래 있고, 히틀러가 꾸는 실지회복과 게르만 영광의 회복이라는

31) 정인섭, 「백림기」, 『조광』, 1939.8, 101면.

32) 위의 글, 112면.

오랜 꿈의 현실화를 노래한다. 마지막에 “백림의 거리는 이상이 없다”는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을 조롱한 것이다. 레마르크의 이 책은 제1차 대전이 야기한 인간상실과 문명 파괴 앞에서 전쟁의 무의미함을 설파한 것으로, 히틀러 시기에 판매금지 조치된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일본인회관에서 일본국가의 보호막 속 안온함과 독일과의 동지애를 표현하고, 군축과 평화체제에 기초했던 전간기 1920~1930년대를 (강대국, 전승국이 강요한) 기아와 폐허의 시대로 전유한다. 이 속에서 추방과 구금, 분서갱유로 얼룩진 히틀러의 문화정책에 대해 동의하며, 독일이 치르는 전쟁을, 실지회복을 통한 게르만의 영광의 재현이라는 독일 전쟁이데올로기를 노래한다. 이런 과거 전유와 현재적 동지의식은 독일과 함께 꾸는 미래, 즉 독일, 일본, 이탈리아(뒤에서 볼)가 함께 공유하는 미래비전으로 확대된다.

「와이마르 기행·괴테의집을 찾아서-」에서 그는 와이마르시의 괴테 사적을 찾았던 여행의 에피소드를 전한다. 여행길 기차 식당 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손기정으로 오해하는 에피소드, 그리고 괴테박물관을 찾아가면서 만난 마을 광장에서의 향토예술 축제, 거리의 카페에 들어가 커피나 맥주(비루)를 가지고 실랑이 한 이야기, 그리고 괴테의 집이 전시하고 있는 유물들, 거기서 불리어오켜진 괴테의 작품에 대한 해석, 그것을 연극으로 보았던 일본 유학시절의 연극 관람 회고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행기는 글을 쓰는 문체의 따스함, 담담함, 아기자기함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독일과 그것을 바라보는 안정되고 담담한 여행 주체의 내면에서 가장 확연하게 견해를 표명하고, 분명하게 묘사된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러운 세계로 자명화되어 표현되는 것은 “히틀러 만세”를 부르는 건강하고 밝은 “신흥독일 청년”이다.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청년 남녀가 바람을 쐬어지고 찌른

바지, 짙은 치마를 입고 지팡이를 잡고서, 가두로 걸어오다가 서로 손을 마주잡고 둥그레하게 서서 고성으로 노래를 합창한다. 나는 그들의 품모를 보고 ‘옹지 이것이 “윈더 포겔”이라는 산야주파군(山野走破群)들의 모습이로구나!’ 하였다. 이날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이 신흥청년운동의 근원이라는 이 윈족(윈더 포겔)이 더욱 심한 모양이다.그들은 어디까지든 명랑하고 건전하고 소박하면서도 이상이 있고 의기가 있다.(이 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고향산천을 그리워하게 되며 인정과 풍속을 통해서 강제적 훈련과 생활을 체험한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개인으로 보아서는 사회의 성실한 인격을 배양하고 국가적으로 보아서는 사회의 중견인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독일 사람들은 질서정연한 군대 조직을 좋아한다. 그리고 권위와 규율에 복종하기를 좋아한다. 또 그들은 근면분투하는 미덕이 있는데다가 이성적이며 실리적으로 소위 ‘전체주의’가 성공되어간다. 그들이 전국적으로 일치단결해서 전후의 부흥에 노력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거니와 근로봉사라는 국가적 부역도 이러한 일상훈련에서 얻는 것이 많은 것이다.”³³⁾

앞서 줄리아 보이드가 언급하듯 ‘신흥독일청년’들에 대한 감동과 찬탄은 이 시기 독일을 방문한 서구의 여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던 인상이다. 그러나 정인섭의 위의 글은 ‘신흥독일청년’들의 생기와 활기를 전체주의의 성공과 국가주의적 부역에서의 기대와 실효성으로 연결시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유럽인들이 보여준 것과 다른 지점으로, 파시스트 국가 간의 연대의 맥락에서 독일과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체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처럼 정인섭이 공동체 감정과 정서를 동원해 해석하고 쓴 독일 여행기는, 히틀러라는 거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현재, 파시스트 소년들이 보여줄 미래, 그리고 일본과의 연대라는 전망 속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33) 정인섭, 「와이마르 기행·괴테의집을 찾아서」, 『문장』, 1940.5, 104면.

(2) 아직은 미약한 미래의 동지- 이태리

이탈리아는 정인섭의 여행일정상 마지막에 해당된다. 이탈리아에서 일본으로 귀환하기 위해 이집트, 그리스 경유 기차표를 예매하고 이집트에서 일본선박 하꼬네마루(箱根丸) 승선이 예정된 것이었다.³⁴⁾ 유럽여행의 끝자락이라는 것은, 파리, 런던, 베를린, 북유럽의 여러 도시를 거쳐 온 눈으로 유럽 내 경제적 후진국을 본다는 것이다. 3회에 걸친 이탈리아 여행기는 이런 이탈리아의 경제적 후진성에 대한 인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대체로 남구에는 도박이 유행한다더니 밭서 그 일단을 보았다. 영·불·독·서에서 모든 사람들보담은 여객들의 품격이 좀 떠러져 보인다. 말하는 투라던지 의복들이 암만해도 한 층 낮아 보인다.³⁵⁾

이런 인상은 로마 시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풍경 중 하나인 무솔리니 파시스트 행진을 목격하고, 파시즘 체제에 대한 해석 및 견해서술로 이어진다.

마침 그때 이 광장으로 유년파시스트들의 행렬이 지나다닌다. 6-7세 정도밖에 안되어 보이는 유년들이 백여명 행렬을 지어서 행진하는데 겉은 이태리 '파시스트'모자와 검은 '샤스' 검은 상하복을 입고 총을 어깨에 메고 장엄하게 발을 맞추며 행군하는 것을 보았다..... 제1차 구주대전 후에 전승국이면서도 극도로 혼란된 이태리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통일한 무솔리니는 즉금도 파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처형을 하는지 행방불명이 되고 만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정신을 통일하고 乞人을 없애기 위하여 그들을 강제로 취업시키며 관리들이 부정한 일을 해도 엄중히 강압을 하여 사회도덕을 향상시킨다는데, 전에는 이태리에 도적

34) 정인섭, 「구라과 여행기-애급의 여수」, 『사해공론』, 1937년 1월.

35) 정인섭, 「이태리방문기」, 『조광』, 1940년 11월, 142면.

이 많고 걸인이 많았다. 그랬지마는 즉금은 훨씬 적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3천년 전의 라마 문명이 고적 가운데 옛 영화를 사랑하고 이제 젊은 세대의 훈련이 이다지도 강화될 때에는 이태리의 장래는 또한 낙관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유년에게 이와 같이 근대적으로 훈육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별개 문제로 무솔리니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잘 짐작하겠다.³⁶⁾

인용문에서와 같이 로마 관광은 시내와 유적관광으로 이루어졌는데, 로마 시내에서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 유년 파시스트의 행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무솔리니 파시스트의 사회정책, 경제적 성공, 3천년 전의 고대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현재 무솔리니는 비록 제왕은 아니라할지라도 수상으로서의 그 실제 세력은 능히 현 이태리를 지배할 뿐 아니라 지중해의 패권을 꿈꾸며 고대 라마제국의 재건을 이상으로 하여 영국을 상대로 세계 여론에 참여하며 독일과 접근하면서 이제 발칸반도의 공작까지 진출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포로 로마, 키케로, 케사르와 연관된 로마 유적 관광 후) 이러한 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무솔리니는 古代政體의 눈물겨운 자취의 바로 앞 집에서 꽃다웠던 그 옛날을 재생시킬라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³⁷⁾

위의 인용문에서 지중해 패권을 꿈꾸며 영국과 상대하고, 독일과 함께 발칸까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은, 1936년 당시의 여행이 아닌, 1940년 10월 이탈리아의 그리스 공격 이후, 즉 글을 쓰는 당시 시점의 이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솔리니의 전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36) 정인섭, 「라마의 인상」, 『조광』, 1940년 12월, 204-206면.

37) 위의 글, 205-206면.

자신의 고대 로마 유적 관광 속에서 기술하면서, 로마의 옛 영광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독일의 히틀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시스트 국가들의 정치적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인섭이 이탈리아에 보내는 이런 애정과 기대는 폼페이 관광에서 만난 소녀와의 에피소드에서 절정을 이룬다. 폼페이는 나폴리에서 그리스 이집트 행 기차를 타기위해 남는 시간을 보낸 곳으로, 유럽의 끝이자 일본과 유럽이 연결되는 결절점이다. “나폴리역을 떠나 차는 동남으로 해안을 따라 간다. ...폼페이 역에 도착하니 일요일이어서 각처에서 구경꾼이 많이 내린다. 역전에서 지도를 사서 시가지로 한창 걸어왔다... ‘폼페이 최후의 날’로 유명한 死都 베수비오 화산”을 찾았다. 그 결절점에서 그는 화산에 묻힌 죽음의 도시 폼페이를 찾고, 거기서 동양적인 소녀와 애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서사화하고 있다.

“17세 가량 되어 보이는 미모의 이태리 소녀인데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신을 신은, 껍도 가난한집 아이인 모양인데 폐허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다. 그 소녀는 내얼굴을 보더니 미소를 띠우면서 사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준다.....나는 거기 앉아 쉬면서 준비해왔던 과자와 포도를 먹으면서 그 소녀에게도 권했다. 그 소녀는 껍도 시장한 모양이었다. 손에는 바구니 하나 하고 커다란 병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영양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나는 그를 동정하여 과자와 포도를 다 주면서 그의 이름을 물었다. 수첩과 만년필을 주니 자기 씨명을 적어준다. ‘데마르테노·긴세 피노’라고 적는데 글씨가 좀 서투른 것을 보니 교육은 소학정도 밖에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품성은 껍도 온순하고 눈이라던지 코라던지 입술 모다 귀엽게 생겼다. 서로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나 서로 무어라고 말이 오고가고 하는 판에 차츰 친해졌다.....그의 주소를 받아 적고 작별을 하면서 옷을 사 입으라고 얼마간의 비용을 주고는 내가 다시 편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어쩔줄을 모른다. 시골소녀의 수줍은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다.....그 후로 나는 아직도 약속한 편지를

보내지도 못하고 4년이란 세월을 지냈건만 그 때 생각만은 지금도 또렷이 머리에 남아있다. 지금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난데없는 이국 사나이를 무척 원망할 것이다.³⁸⁾

위의 글에서 이태리의 가난한 농촌 소녀는, 그가 유럽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한 서구여성들, 즉 퇴폐적 욕망의 화신이자 매력과 공포를 자아내는 여성들과 다르게 설정되어있다. 다분히 허구적 서사화의 요소를 보여주는 이 에피소드에서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온순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고픈, 그러나 젊고 아름다운 ‘서양의 여인’과 ‘동양인 여행자’가 새롭게 맺고 있는 ‘위계’이다. 이 위계에서 정인섭이 소녀에게 베푸는 먹거리·금전·애정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패권 전환 과정에서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라는 새로운 동양인 여행자의 위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녀 이미지가, 서구 도시의 대중 오락문화 공간에서 넘치는 욕망과 매력으로, 동양인 여행자를 주눅 들고 도망가게 만들었던 서양여성들의 대립항에서 이미지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서양 여성 이미지’의 교체, 이 관계 속에서 ‘동양 지식인 남자’의 위계 변경은, ‘서구 구제국(영국·프랑스) -아시아(일본)’이 맺는 관계를 탈피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벌이는 시점, 새롭게 서구와 관계를 설정하는 ‘독일·이탈리아 - 일본’의 관계와 맞물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여행의 마지막 부분, 일본행 선박(箱根丸)과 유럽대륙의 연결지점에서 서사화된 이 에피소드는, 일·독·이 삼국 연대의 정서적 상관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인섭의 유럽 여행기가 『조광』에 연재되던 시점, 특히 1940년 9월 27일 일·독·이 삼국군사동맹이 체결되는 시기는, 1936년 11월부터 이루어진 긴 시간에 걸친 일·독·이 방공연대가 일·독·이 추축국 군사동맹으

38) 정인섭, 「이태리기행, 폼페이 감상」, 『조광』, 1941.1, 216-218면.

로 정점을 찍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대 언론에는 일·독·이 삼국 우호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기사가 실렸다. 예컨대 “방공추축국 건설 4년의 신춘을 마지한 백립에서....삼국우호 강화 차 월간 잡지 『백림-라마-동경』을 발간” 했다는 소식, 이 월간 잡지가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함은 물론 일본향의 것에는 영어를 피하고 특히 일본 활자를 주조 일본어 설명을 부할 예정이므로 일본에서 매우 환영받게 될 것”이라고 기사화하고 있다.³⁹⁾ 또한 일·독·이 친선 미술전시회⁴⁰⁾, 일독 양국친선을 증진시키자는 주일 독일 대사의 담화⁴¹⁾가 실리기도 했다. 그리고 “맹방 독일의 나치스 대회”와 “라마 진군기념일 축하”에 참여하는 일본 측 대표의 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장애를 뚫고 매진하는” 성전 수행의 과정⁴²⁾이자 협력으로 전유되었다. 또한 정인섭 외에도 만주국의 외교사절로서 베를린과 로마를 방문한 진학문의 여행기는 이런 삼국 연대의 열광과 그것을 증폭 보도하는 여행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이런 독일과 일본의 외교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양국간 우호관계가 1938년 “문화교류협정” 체결 이후 “연대정책(Bundpolitik)”으로 지속되어왔고, 나치 독일의 문화 외교정책이 “민족적 힘의 팽창과 세계 지배력을 목표”로 “독일문화를 위한 투쟁연대 (Kampfbund für deutsche Kultur)”로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⁴⁴⁾ 이를 위한 나치 외무부의 주요 임무들로 일·독 협력기구 (DJG: Deutsch Japanische Gesellschaft) 내의 일·독 대학 교환교수 프로젝트를 통해 반볼셰비키즘과 반유대주의의 동일화, 히틀

39) 「삼국우호 강화차 월간 잡지 발간」, 『조선일보』, 1939.1.11.

40) 「일·독·이 친선 圖書展」, 『조선일보』, 1939.7.23.

41) 『조선일보』, 1939.7.20.

42) 「라마진군기념 축하에도 참여」, 『조선일보』, 1939.7.13.

43) 진학문, 「羅馬, 柏林市民의 歡迎, 滿洲國防共親善使節로서」, 『삼천리』, 1939.4.

44) 황기우, 「나치의 대일 문화외교를 통해 본 반유대주의의 의미-나치의 추축국 정책을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사람』 46호, 2014.7.

러우겐트, 영화의 공동제작, 출판협회 등 문화와 학계에서 활동하던 독일·일본인들 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교류 등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라마의 인상」이 실린 『조광』(1940.12월)에 「일·독·이 삼국정치체제」에 대한 논설형 해설기사가 실려,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전제주의 국가로서의 공동의 목표, 우정과 협력, 그러면서도 각각 국내에서의 파시즘 동력의 차이점에 대해, 지도자 국가-독일, 협동체국가-이태리, 황도국가-일본을 서술, 해설하고 있다. 이 논설에서 “일·독·이 삼국이 세계 현상유지 국가군에 대항한 현상타과 국가라는 점에서 또 이 현상타과라는 극난의 대 사업을 목표로 국내의 총력을 집중, 통제하는 점에서 그 접근성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서술한다.

“독·이는 구주에서 영국의 지배적 세력을 구축(驅逐)하여 구주신질서 건설을 목표로, 일본은 동아에서 영미세력을 배제하고 장개석을 굴복시키므로써 동아신질서 건설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점에서 이 삼국은 유사성과 접근성이 있는 것이다.”⁴⁵⁾

위와 같이 설명하며, 이들 삼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새로 일어나갈 신질서를 강조한다.⁴⁶⁾ 서구의 몰락과 동양의 부흥이라는 ‘대동아’ 이념의 구도가 일본이 아시아에 전하는 메시지였다면, 이 메시지는 세계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삼국동맹이라는 파시즘 연대의 구도 속에서 물질적 정치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인섭이 여행기에서 강조한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갖는

45) 황순봉, 「일·독·이 삼국정치체제」, 『조광』, 1940.12, 88면.

46)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제2차 대전 중 정치·군사적 협력을 위한 일·독·이 삼국동맹을 구축했던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나치 독일의 인종이데올로기 정책과 부딪히는 문제, 독일 내 일본인들의 위치 등은, 이 당시 신문에서 기사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경분, 「열등한 일본인과 ‘신비화’된 일본제국: 나치제국의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간극에 대하여」, 『국제지역연구』 19권 4호, 2010 겨울, 69-96면 참조.

지위는, 삼국군사동맹이라는 전범국가 연대의 지정학을 개인적 정서적 체험기를 통해 대중화하고 이미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상지리를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인 영문학자 정인섭이 표상했던 이유는 식민모국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맺는 파시즘 연대에 대한 적극적 동의, 그것이 만들어낼 미래 전망에 대한 열광적 수용에 근거한다.

4) 영국 - 최후의 적에 대한 증오와 저주

정인섭의 여행기는, ‘여행 경험을 쓴다.’라는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여행기가 내포한 다양한 착종태를 보여준다. 이 착종의 복합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영국여행기이다. 그가 유럽여행 직후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이 1938년의 「애란문단방문기」와 「영국문단순례」로서, 둘 다 유럽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치적 지정학과는 별개의 문예기행으로 시도된 글이었다. 그러나 「영국문단순례」는 ‘순례’라는 제목과 달리 1회로 그쳤고, 정인섭은 1939년부터 히틀러의 유럽 공격의 순서대로 기행문을 써나갔다. 그의 유럽여행기의 마지막은 1942년 독일과 영국간의 가장 지루하고도 맹렬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영국문화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보』에 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⁴⁷⁾ 이렇게 본다면 영국 여행기는, 1938년 정인섭 유럽문예기행의 시작이었지만, 이 기획은 시작부터 폐기되고, 그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영문학의 고향인 영국 및 영국문화에 대해 증오와 저주의 글쓰기로 유럽여행기를 마감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1938년 글과 1942년의 글을 대비적으로 고찰하면서, 영국을 보는 시각, 거기에 개입되는 전쟁의 지정학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7) 「영국문화의 위기」, 『매일신보』, 1942.2.24~3.3, 6회 연재. 이글에서 펼친 영국문화·서구문화에 대한 증오와 저주는, 해방 후 냉전기에 다시, 삭제·수정·은폐된 채 『세계문학산고』(동국문화사, 1960)에 조각조각 거의 난도질당하다시피해서 다시 실린다.

정인섭은 영국의 세관에서의 혹독한 국경통제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었다. 이를 1938년에는 “영문학의 특색의 하나인 충성을 그들의 태도와 방법에서 엿볼 수 있었다”거나, “여행권 조사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텐지 대영제국을 통괄해가는 품격이 보인다. 규율을 엄수하는 듯하되 어데까지던지 신사적 체면은 지켜주는 것 같았다.”⁴⁸⁾라고 서술했었다. 그러나 똑같은 경험을 기록하고 나서, 1942년에는, “자기나라 상품을 이다지도 보호하려는 것은 참으로 놀라웁다. 내가 여기서 그들의 앵글로색슨적인 경제관념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체제로 무역을 독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하는 데 있다”⁴⁹⁾라고 언급한다. 더 나아가, 팁을 요구하는 세관원들을 “이것이 소위 ‘한손으로 시를 쓰고 또 한손으로 주산을 한다.’는 영국의 민족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성격과 수단을 써서 만들어낸 영국문화”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영국의 정치와 무력이 쫓겨가는 오늘에 있어서 그 문화도” 재평가 되어야한다고 언급한다.

제2차 대전 초기에는 히틀러가 승리하면서, 폴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쉽게 패배시켰었다. 그러나 1942년은 히틀러의 유럽 공격을 거의 혼자서 막아내던 영국을 필두로 한 연합국 측에서 반전의 가능성과 독일 측에서 긴 침체가 지속되던 시기이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영미세력과 전투를 진행하던 시기로서, ‘영미귀축(英美鬼畜)’담론을 유포하며 영미문화에 대한 증오심과 결전의지로 미디어 담론을 채우던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정인섭은 1942년 당시 유일하게 남은 한글신문 『매일신보』에, 6년 전의 영국 여행체험을 다시 호출해 쓰고, 영국문화를 비판하고 있다. 그 비판의 방향은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한편으로는 영국문화를 ‘앵글로 색슨 경제관념’, ‘이기적 배금주의’라고 비난하고, 영국문화가 주도하고 세계화시켰던 자유주의, 자본주의, 개성, 인격 등 서구문화의 제반

48) 「영국문단순례」, 『조광』, 1938년 5월, 211면.

49) 「영국문화의 위기」 1회, 『매일신보』, 1942.3.2.

가치들을 '유태적 이기주의'로 축소·가치 전환하는 것이다.

영국문화에 세계주의적 일면이 있지만 이것은 반은 유태적인 세력의 영향이겠고, 반은 대영제국의 식민정책에서 이루어진 후천성일 것 같기도 하다. 유태족의 이기주의적 세계주의와 영민족의 공리주의적 국가주의에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경제적으로 인도주의요 실질적으로 배금주의인 것이다. 이것이 서로서로 이용되어 오늘날의 영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50)

이어서 그는 “여기저기 식민지를 만들었고 거기서 많은 원료를 가져다 상품을 만들어서 또다시 넓은 시장을 구하자니깐, 그 어느 의미로 보아도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이라든가 문호개방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큰 힘을 얻었다.”라면서, 영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연결시킨다. 또한 영국문화가 식민지 확장을 위해 보편화한 자유무역 및 그것을 떠받치는 그들의 사상-자유, 개성, 인격-에 대해 맹렬히 비난한다.

그러나 사실상 서구의 자유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1938년의 경험과 1942년의 글쓰기가 큰 격차를 보인다. 예컨대 트라팔가 광장에서의 반프랑코, 반파시즘 군중 시위행렬 대해서 1938년에는 “대영제국 룬돈 수도, 넬슨탑 밑에서 이런 군중시위를 본다는 것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별다른 느낌”이라고 했었다. 식민지 조선과 다른 영국의 언론의 자유, 파시즘을 비판하는 광장에서의 인민전선이나 맑시스트의 연설에 대해서는 1933년 영국을 여행했던 이순탁이나 1936년 런던을 여행했던 정인섭이 공통적으로 표현한 ‘부러움’의 정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2년에는 동일한 경험을 “인격존중이라는 미명하의 방입주의”라고, “이기주의와 독선주의”(매일신보 2회-42.2.25)라고 재전유한다.

50) 정인섭, 「영국문화의 위기」, 『매일신보』 4회, 1942.2.27.

1942년 정인섭이 서술한 영국문화, 여기서 비롯된 서구 자본주의 및 개인주의·자유주의 기반의 문화에 대한 전면적 비판은, 결국 새로운 대안 가치, 새로운 지식 체계모니에 대한 확신과 연결되어 있다.

세계사의 전환을 생각하고 장래에 미영문화를 도로혀 우리들이 지배하는 날이 온다할지라도 조금도 서슴지 않고 그들을 능히 지배해 나갈만한 확호불호한 신념과 지식적 기능을 배양해둘 필요가 있다. 영국문화의 위기는 대동아 문화의 융성을 의미한다. 거대한 지역을 가지고 수다한 인구를 가지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오랜 역사를 가진 아세아에 위대한 문화가 건설될 것을 전제하지 안코 영국의 몰락을 운운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리고 오랜 과거에 있었던 아세아의 문명이란 것은 분산적 이요 내분적 이요 국부적 이요 방임적인 성격이었으므로, 영국문화가 보여주는 개인주의적 이요 자유주의적 이요 위선주의적 이요 오합(烏合)주의적인 것에 한동안 화를 입어왔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올 대동아의 문화는 종합적 이요 중추적 이여 전체적 이여 조직적인 신질서의 특질을 갖게 될 것이다.⁵¹⁾

위의 글에서 보듯, 정인섭의 영국문화에 대한 맹렬한 비난은, 독일제국이 지배할 서구와 일본제국이 지배할 아시아에 대한 전망, 그 전망을 필연으로 믿고 선택한 확신과 연결되어 있다. 정인섭은 여행기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동의하고, 능동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제2차대전 전범국가의 지정학과 미래 비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3. 패권 교체기의 지정학과 트랜스내셔널 지식인의 문화적 위치

51) 정인섭, 「영국문화의 위기」, 『매일신보』, 1942.3.2. 연재 6회.

본고에서는, 정인섭의 1936년의 여행과 1939-1942년에 게재된 여행기를 대상으로, 1940년대 유럽 내 지역별 표상의 차이와 당대 미디어텍스트를 교차하며, 제2차대전 전범국가인 삼국동맹의 심상지리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베르사이유·워싱턴 체제의 무력화 과정과 대공황 이후의 폐쇄적 보호주의로의 변모, 그리고 인민전선과 과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치 변동이 함께 얽힌 시기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1차대전 후 미국과 함께 부상한 일본의 패권화 경향과 세계체제의 전환이 맞물리는 시기이다. 정인섭은 이러한 시기 유럽 여행기에서, 한편으로는 1936년 여행시점의 ‘개인(소비자/국민) 여행자 정체성’과 새로운 서구표상으로서의 퇴폐적 유럽도시라는 이미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전범국 독일에 동일화된 유럽지정학의 심상지리, 즉 일본-독일-이탈리아 삼국동맹의 시좌에서 유럽도시 표상을 열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의 여행기는 1940년대 폴란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히틀러가 공격하는 지역을 따라, 일·독·이 삼국동맹에서의 제2차대전 전범국가들의 전략적 목표, 그 국가들 내부에서 국민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각종 전체주의 선전과의 컨텍스트적 맥락 속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인의 담론을 통해 유포되는 ‘지정학의 미래 비전’은, 개인적 확산, 유행하는 시대의 대중표상, 미디어의 과학 담론, 인문학 지식인이 펼쳐내는 전망과 새로운 지식생산 혹은 기존지식의 재조합, 국가의 전쟁이나 경제전략, 전쟁 보도기사가 복합적이고 상호적으로 서로를 보충하는 ‘시플라크르’와 실재가 혼용된 복합적 착종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착종태 속에서 정인섭 여행기는 때로는 여행자의 경험적 지위로, 때로는 인문학 지식인이 펼쳐내는 전망과 새로운 지식생산으로, 혹은 기존 지식의 재조합으로, 때로는 문학자의 감수성으로, 때로는 미디어 컨텍스트 배치 속에서 프로파간다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40년대 씌여지는 정인섭의 유럽여행기가 이런 전쟁 수행의 목표, 국민 프로파간다, 그리고 문학을 통한 감정 동원의 정치적 역할과 상호적으

로 씌여지고 있었던 시점, 정인섭의 식민지 조선 땅에서 행했던 구체적 행적은 주로 ‘대동아 전쟁’에 대한 협력 실천으로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9년 10월 이후 1943년 11월까지, 시국 강연 좌담회, 일본군 위문·학병지원, 신사·근로 봉사활동 등은 24회 이상 진행되었다. 대략 ‘비상시국과 국민문학’, ‘신체제하 조선문학의 진로’, ‘국민총력동맹 문화부 간담회’, ‘미영문화를 격한다.’(조선문인협회 결전문화강연대회 -1941.12.13.), ‘일본 군인이 되는 마음가짐을 듣는 좌담회’(조선문인협회-1942.6.10.), ‘학도진출을 말하는 좌담회’(1943.11.7.) 등이 그것이다.⁵²⁾ 즉 유럽 여행기가 씌여지고 연재되던 1939년~1942년은 이런 전범국가 연대의 심상지리와 지역표상의 생산, 그리고 전시협력의 부지런한 실천 활동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약은 사실상, 그가 ‘지난 시기 20년의 시간’을 ‘영문학자’로 살아온 개인으로서의 지식인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문제적인 지점이다. 지난 시기 20년의 시간이란 본문에서 언급했듯, 국제적으로는 베르사이유·워싱턴 체제라는 국제 협조주의 시기로 통칭되는, 3post(1차 세계대전 이후,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 아시아에서의 3.1/5.4 운동 이후) 시기이다. 식민지 조선 내부적으로, 1919년 3.1운동 이후 1938년 신체제 이전까지 대략 문화 통치로 약칭되고, 전과 후에 비해 문화의 정상적 발전과 예측가능성 속에 놓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여행기에서 이러한 시기를 정인섭은 독일의 히틀러와 동일화된 시각에서 ‘눈물과 기아의 지난 시기’라고 말했지만, 실상 개인 정인섭에게는,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해외문학파로 활동하며, 연희전문의 교수로서 언어학과 영문학이라는 보편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전문가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온 시간이었다. 그런 그가 ‘영국문예기행’을 기획했으나 미완에 그치고 중국에는 자신의 여

52) 박중훈, 「일제 강점기 정인섭의 친일활동과 성격」, 『역사와 경계』 89, 2013, 12.

행기 전체를, ‘지식인으로서의 내외적 정체성의 근거이자 기반인 영국문화(西歐文化)’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글쓰기로 마감한 것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인 이상, 개인적 참담함과는 별개로, 필수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행적마다 ‘논리화,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유행한 ‘지정학의 미래비전’이 유행하는 시대의 대중표상, 과학으로 포장되어 유포된 이데올로기, 인문학 지식인이 펼쳐내는 지식의 재조합·변형·생산, 권장되고 강요되는 도덕적 가치, 국가의 전쟁 전략, 미디어의 전쟁 보도 기사가 복합된 착종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편학문 혹은 직능분야 전문가인 영문학자·언어학자로서 자신의 존재성 자체를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기 정인섭은, 이러한 자기 존재 증명, 자기존재의 의미를, ‘수입 지식의 쓸모와 시대의 지정학이 만나는 접점’에서, ‘실용적 직능분야의 한시적 쓸모’로 위상변경함으로써 그 정당화 근거를 찾는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있어서 불란서가 국제적 외교용어로 유일했던 것이 국제연맹 이후부터 영어가 병용되어오더니, 이미 불란서가 패배되어 그 문화가 위기에 서 있고, 영국세력이 구아(歐亞)에 있어서 제한되는 오늘에 있어서 불어와 영어 이외에 000이 국제수준에 오르게 될 것은 물론이다. 서구에 있어서 독어와 동아에 있어서 국어(日語)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두 개의 국제적 용어가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보편화될 때까지는 불어와 영어의 수단적 가치는 당분간 존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나는 여기서 외국어 교육 내지 영어교육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

과거에 있어서 구미문화에 맹목적으로 섭취했던 사람들은 박래품이면 무엇이든 좋아하듯이 외국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배우며 가르쳤던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그것이 구미숭배를 하는 목적가치로 취급되어왔던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단연 버려야할 것이니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서 구미문화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한거름 나아가서는 그들의 식민지를 접수하여 사후를 처리하는데 멸사봉공되는 기술의 양성에 이용되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영어가 필요 없는 날에는 헌신짝 같이 버릴 각오가 있어야한다.따라서 영어교육개혁도 시급한 일이다.....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영어 교육의 태도에 대한 근본이념의 혁신은, 실로 더 한층 긴급한 문제일줄 안다.⁵³⁾

위의 글에서 그는, 서구는 독일어가, 아시아는 일본어가 공용어가 될 미래 세상에서, 영어·불어의 쓸모가 있다면, ‘구미문화를 비판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식민지를 접수하여 사후를 처리하는데 멸사봉공되는 기술의 양성에 이용’하기 위해 쓸모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영어가 필요 없는 날에는 헌신짝 같이 버릴 각오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해외문학과로, 외국문학 교수로 살아오고, 덴마크 코펜하겐의 세계언어학자 대회에서 ‘영어교육’을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유럽을 여행했던 정인섭은, 영어와 영국문화의 절멸을 강력하게 예측·주장하고, 그것을 당위화·진리화·가치화하고, 그 영어의 쓰임을 오로지 미래의 패권 국가에서 ‘전리품 관리용 언어’로만 국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이 시기 정인섭의 경우, 이전까지의 지식인의 자기 정체성의 근거인 ‘가치와 문화’를 능동적으로 폐기하고, ‘실용적 직능분야의 한시적 쓸모’를 정체성의 준거로 수용하는 결단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단은 물론,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결단을 통해, 자기 근거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단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부지런하게 수행되었다.

정인섭의 케이스는 어찌면, 국가 간 이동 가능성과 패권 국가 발 지식

53) 정인섭, 「영국문화의 위기」, 『매일신보』, 1942.3.2. 연재 6회.

헤게모니가 유통되는 시스템 하에서, 그리고 국가(지역)간 격차가 지배하는 근대 세계체제에서 ‘트랜스 내셔널 지식인의 문화적 위치’가 갖는 근원적 난제를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간 격차를 통해 건인·작동되는 발전주의가 지배하는 글로벌 시스템에서, 패권국가로부터 헤게모니 지식을 앞서서 획득하고, 그 ‘획득한 지식 및 자국과 패권국 사이의 격차가 주는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자국에서 이익(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지위)을 획득하는 ‘이동 지식인’, 즉 유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트랜스 내셔널 지식인’의 문화적 위치의 공통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인섭의 경우가 크게 예외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정인섭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보통 장기 지속되는 ‘패권’이 극적으로 전환되던 바로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표현과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패권으로의 전환이 완료된 후 덮어버린 지점을 화석처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세계와 한반도에 냉전 지정학이 펼쳐졌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새로운 패권은, 당시의 전범국가 지정학의 예상과는 달랐다. 이 냉전 지정학 하에서 정인섭은 1938~1942년 자신의 대다수의 글을 조각조각 내 삭제, 수정, 재배치해서 선집 『세계문학산고』(1960)를 발간했다. 전범국가의 지정학을 지우고, 냉전 지정학 내의 ‘순수 문학’이라는 새로운 ‘헤게모니 지식’으로, 앞선 화석을 덮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화석이 존재하는 자리, 전범국가의 지정학과 냉전 지정학 사이의 단층, 불연속은 우리 역사에서도, 연구사에서도 문제로서 직면되기보다는, 시간 연대기 상의 이동으로 덮여졌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이 화석이 놓인 단층, 불연속이 이후의 냉전 지정학의 시좌로 덮이는 과정에서, 히틀러 시대의 파시즘이나 소비에트의 볼셰비키 이데올로기는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축으로, 당시의 실재와는 다른 ‘지식 재조합’이 만들어져, 냉전기 내내 전 세계에 유통된 바 있다. 우리는 모두, 이 화석을 덮어 버리는 냉전

지정학 내의 집단 실천에의 동참을 통해, 역사의 단절과 불연속이 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거대한 전환기의 행위주체로서의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안전지대’를 확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후발 근대국가의 식민지 출신 지식인 정인섭의 여행기나, 히틀러 시대 독일을 여행한 서구 유럽인들의 여행기가 보여주는 ‘기이함’이나 ‘비상식적’이거나 ‘예외적’으로 보이는 인상의 편린들은, 역으로 우리의 상식이 서 있는 자리 밑의 화석, 그 화석이 간직한 기괴한 시뮬라크르를 돌아보라고 주문한다.

| 참고문헌 |

1. 정인섭 기행문 텍스트

「파란의 인상」, 『조선일보』1939.9.9.~13. 4회 연재
 「파란 문단 프로필」, 『조광』, 1939.11월
 「정말 점묘」, 『동아일보』. 1940.4. 13~16. 3회 연재
 「정말 시찰기」, 『조광』1940.7월, 8월, 2회 연재
 「파리의 추억」, 『조광』 1940년 3월, 4월, 5월 3회 연재
 「巴里『奈巴倫墓』參拜記, 凱旋門을 지나 偉人の 무덤을 찾다」, 『삼천리』 1940년 10월
 「세계문인 기념상, 인생은 짜르고 예술은 길다」, 『삼천리』, 1940.10월
 「백림기」, 『조광』 1939.8월
 「와이마르 기행-괴테의집을 찾아서-」, 『문장』, 1940.5
 「구라파 여행가-애급의 여수」, 『사해공론』1937년 1월
 「이태리방문기」, 『조광』, 1940년 11월
 「라마의 인상」, 『조광』, 1940년 12월
 「영국문단순례」, 『조광』, 1938년 5월
 「애란문단방문기」, 『삼천리』. 1938년 1월, 4월, 2회 연재
 「영국문화의 위기」, 『매일신보』, 1942.2.24. ~ 3.3, 6회 연재
 「서서의 자연과 인문」, 『조광』, 1940년 9월
 「노르웨이와 덴마크」, 『매일신보』, 1942년. 2.24-3.2

2. 참고문헌

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혁 옮김,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 횡단』, 현실문화, 2015.
 박중훈, 「일제 강점기 정인섭의 친일활동과 성격」, 『역사와 경계』 89, 2013.12.
 이경분, 「'열등한' 일본인과 '신비화'된 일본제국: 나치제국의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간극에 대하여」, 『국제지역연구』 19권 4호, 2010 겨울, 69-96면.
 이민희, 「정인섭이 바라본 폴란드·폴란드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002, 311-336면.
 정인섭, 『세계문학산고』, 동국문화사, 1960
 줄리아 보이드, 이종인 역,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 페이퍼로드, 2021.
 차혜영, 「1930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환과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지정학·이슈타트의 '최근 세계일주기'를 중심으로」, 『국제비교한국학』, 2016.12, 333-378면.
 차혜영, 「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의 유럽여행과 서구 시와의 변경, 1936년 정인섭의

유럽여행체험에 대하여, 『국제비교한국학』, 2015.12, 57-100면.
황기우, 「나치의 대일 문화외교를 통해 본 반유대주의의 의미-나치의 추축국 정책을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사림』 46호, 2014.7.

<Abstract>

Geopolitics of the Solidarity of War Criminal States, Jung In-seop's Travels to Europe in the Hitler Era

Cha, Hye-young

This paper is a study of Jeong In-seop's travels to Europe published in the mass media of colonial Joseon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1939-1942). For this travelogue text, differences in regional representations in Europe in the 1940s were compared with contemporary media texts. Through this process, the image geography of the Triple Alliance, a war criminal state in World War II, was examined.

In the travelogue, Jeong In-seop produced European representations along the lands conquered by Hitler, such as Poland, Denmark, France, Germany, Italy, England, etc., in the 1940s at the seat of the Japan-Germany-Italy Triple Alliance.

In summary, Poland and Denmark, Hitler's first conquered lands, were expressed as the peaceful hometowns of art in the absence of resistance, and France as the city of decadent desires, and the land of strife begging for money and life from Hitler. In addition, his travel journals recognized Hitler in Germany and Mussolini in Italy as heroes trying to restore their former glory, and expressed emotional agreement with Japan-Germany-European alliance. The description of British culture located at the beginning and end of his travels to Europe shows the prospect and agreement for the change of hegemony in the world system at this time,

and the process of resetting knowledge hegemony and recombination of existing knowledg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ntellectual In-seop Jeong, a transnational intellectual, who is from a colony of a late modern country and an expert in the field of universal science, resets the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knowledge hegemony' during the transition to hegemony in the world system, resetting the criteria for self-identity as an intellectual, etc. It can be said that it shows various points.

Key words: Hitler, Travel Journal, In-seop Jeong, Triple Alliance, War Criminal State, Geopolitics, Transnational Intellectuals, Cultural Position of Intellectuals, Hegemony in the World System, Hegemony Knowledge, Politics of Consent, Cold War Geopolitics

투 고 일: 2021년 11월 30일

심 사 일: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12월 23일